

디지털 기반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본격화

전주시, 노후화된 전주 제1·2산단에 총사업비 90억원 투입 ‘통합관계센터 구축사업’ 추진

노후화된 전주 제1·2일반산업단지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탈바꿈된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제1·2일반산업단지(이하 전주 제1·2산단)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이하 스마트그린산단)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국비 60억원 등 총사업비 90여 원을 투입해 ‘통합관계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관계센터 구축사업은 전주 제1·2산단이 지난해 6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친환경 산단 조성 △안전한 산업 환경 구축 △근로자 편의 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의 통합 체계로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 제1·2산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난과 안전사고 위험, 환경 오염 문제를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통합관계센터는 기존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AI기술을 적용해 관제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산단 전역에 11가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주요 시스템은 △재난·안전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지능형 CCTV 영상분석 시스템 △자율순찰로봇을 비롯한 안

전 강화 인프라 △환경 관리를 위한 친환경 가로등 △점수와 강우 예·경보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는 근로자 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 주차장과 스마트 셀터, 스마트 풀 등 첨단 편의시설과 산단 근로자 및 방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개방형 오픈 커뮤니티(웹서비스)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관계 부서 간 회의와 수요조사를 거쳐 11개 관제 시스템 아이템을 선정했으며, 지난 9월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문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후 이달 중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

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최종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달 내 국비 등 사업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후 시는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7년까지 통합관계센터 구축 및 공사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계센터는 전주 제1·2산단의 노후 이미지를 탈피하고 디지털 기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업 환경으로 탈바꿈시킬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후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제8회 전주 콘텐츠 페어 개최

27~28일 가상융합산업 성과공유회 ‘전북 콘텐츠 피지컬 업(UP)’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등 전주시역 가상융합산업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체험형 축제가 열린다.

전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7일과 28일 이틀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원에서 가상융합산업 성과공유회인 ‘2025년 제8회 전주 콘텐츠 페어’를 개최한다.

‘전북 콘텐츠 피지컬 업(UP)’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북 메타버스 지원센터에서 제작 지원한 우수한 디지털 콘텐츠가 전시되는 등 한 해의 수확물을 알리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업 콘텐츠 전시관 △가상융합분야 기술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첫날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역기업이 참가하는 가상융합산업의 변화와 지원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치는 전북 가상융합산업 라운드테이블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콘텐츠페어에서는 이틀간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백제 무왕의 여정 △간호 실습 콘텐츠 △반려식물과 소통하는 힐링 콘텐츠 등 지역기업 7개사의 우수한 가상융합 콘텐츠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업 콘텐츠 전시관’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투자사 컨설팅과 투자 전문가와의 1:1 비즈니스 상담 등 비즈니스 상담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기조연설과 더불어 가상융합기술과 AI모델, 인프라, 서비스 확산이라는 네 가지 아젠다에 따른 AI와 가상융합산업의 혁신에 대한 주제 발표를 선보이는 ‘퓨처 세미나’가 진행된다.

올해 콘텐츠 페어는 기업 릴레이 소개 및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상생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잇업데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행사 참가는 링크(<https://forms.gle/RLkaZeJ3AbKUshSW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국가 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전’

국회 찾아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만나 국회 단계 예산 증액 반영 건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이 임박한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일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예산 증액 반영을 위해 예결위 위원들을 만나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이는 국회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로 넘어온 정부 예산안이 예결소위의 최종 조정 후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만큼, 주요 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각인시켜 꼭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우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날 우 시장은 한병도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만나 전주시 중점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또, 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방문해 예

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우 시장은 국회 심의 단계 예산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를 위해 기재부 간부공무원들을 차례로 만나고, 예산 심의 실무를 총괄하는 국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도 전주시 중점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위한 실질적 협조를 당부했다.

우 시장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유학 정신을 잇는 심신 수양 및 한국 유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지역 내 콘텐츠 제작 및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융합 전주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전주의 글로벌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전주국제그림책도서관’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야간문화공간 조성’ 등 9개 사업이다.

시는 향후 정부예산안이 통과될 때



우범기 전주시장은 20일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예산 증액 반영을 위해 예결위 위원들을 만나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우범기 전주시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고, 예결소위와 기재부 예산실 등의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며 시 중점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강한 경제, 새로운 전주의 비전을 실현하고 변화를 이

끌어 갈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힘 없이 달려왔다”면서 “국회 최종 의결 전까지 지역정치권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전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도시재생정책포럼’ 25~27일 개최

전주시가 도시재생 10년을 돌아보고 미래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포럼을 연다.

전주시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에 관심이 큰 시민과 전문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2025 제4회 전주시 도시재생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도시재생 10주년을 맞아 전주시가 직면한 인구감소, 청년 유출, 빈집 증가, 1인 가구 확대 등 주

요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관·학·연·기업 등 다양한 실행 주체가 함께 참여해 도시재생의 새로운 실험을 펼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함께 만든 10년, 함께 열어갈 미래’를 주제로 인구 감소와 빈집, 제도개선, 혁신 창업 생태계 등 도시가 당면한 핵심 과제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루게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초등학교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나서

전주시는 20일 북일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예정된 마지막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매립장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의지를 다짐하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각별한 주의 당부

최근 전주 지역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과 공문서 위조 등의 사기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칭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 계약을 하자

며 위조된 문서 등을 통해 계좌 입금 유도하거나 명함 및 공문서위조 등 지능화된 수법을 통해 물품 대리 구매 및 계약 알선을 유도하며 금품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명의 사칭 물품 계약 유도 △공문서위조 물품 구입

요청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하며 계약 알선 등 사칭을 통해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주를 이뤘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 연합회와 외식업 중앙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해 사칭 사기 및 노쇼에 대한 주요 피해 예방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은 민간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지 않음 △개인 계좌로 금품 송금을

요구하지 않음 등의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물품 구매 및 계약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주시 누리집에 기재된 행정전화 등 공식적인 경로로 담당 부서 또는 계약부서에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의심되는 사기 연락을 받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할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